스칸디나비아의

보 건 간 호 계

〈서울시중구보건소내〉
〈시 범 결 핵 관 리 소〉김 연 옥

원래가 글을 써보지 못한 저로서는 별달리 자미있는 글을 써나가기는 어려우나 그저 생각 나는대로 적어 볼 생각입니다.

우선 스칸디나비아 라고 하면, 놀웨이, 스웨덴, 덴막, 이 삼개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일찌기 해외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나에게 기회가 없었고 현근무처가 스칸디나비아의 원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관계로 기회를 갖게 되어 지난 2월에 약 5개월간 교육 예정으로 출발했으나 다행하게도 현지에서 3개월을 더 교육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삼개국을 두루 다니며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8개월이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의 교육을 한정된 지면에 전부를 옮기기에는, 어려운 일이고 뭣보다 외국여정은 처음 길이라 그 모든 감정과 느낌은 정말 아쉬운 감이 많았고, 더군다나 졸필로 엮어가는 저로서는 더욱 더욱 아쉬운 감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표현에 다소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고맙게 읽어 주시고 이 글이 보고 느낀대로 잘 표현이 되어 여러분에게 참고가 된다면 더한층 글을 쓰는 보람을 느끼겠읍니다.

그러면 우선 처음 내가 교육을 받은 놀웨이 간호계에 대하여 본대로 적어보겠읍니다. 놀웨이국의 총면적은 324만km^2 정도이고 서울인구와 비슷한 4백만정도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수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도는 국토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구수도라고 소개하는 것이 좋겠죠. 본인이 오슬로에 도착하여 교육중 오슬로 시당국에서 시의 각 지역에 대한 보건간호원의 중요사업 계획상황을 살펴보았읍니다. 오슬로시 외각지대 인구는 약 28만의 인구에 다 170제곱평방哩의 크기입니다. 행정구역은 근대적인 주택이 보여주듯이 산림으로 우거져 있는 농촌 지역

으로 되어 있는 준자치도시이며 그곳 사람들은 퍼엄퍼엄 살고 있읍니다.

오슬로의 교외지역은 37명의 보건 간호원들이 각 구역에 배치되어 있었읍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37개로 구분된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을 담당한 보건간호원들은 오슬로시 보건당국(city health)에 속해 있는 직원의 일부이며 그들은 30개소에 배치되어 인구비례 (4천내지 5천명)에 의하여 각기 보건간호사업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그들은 오슬로시 보건소(main center)와는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근무하고 있는 보건간호원들의 조직과 관리는 제일감독관과 교육을 담당하는 감독원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읍니다.

모든 지역은 비슷한 주민수요이며 대개의 경우 인구 비례에 의하여 담당구역을 정하고 있읍니다.

Health Service는 학교 또한 가정으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그러나 Bed Side Nursing 즉 환자의 간호는 계획표에 없는 것으로 보아 환자의 간호는 하지 않는 것을 알았읍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간호원은 다만 계획에 순응하여 일하고 있었읍니다.

계획된 보건 간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특별

〈김 연 옥〉

한 사업은 국립보건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계획입니다. 놀웨이국으로서는 단 하나 밖에 없는 이 학교 학생에 대하여 놀웨이 보건당국에서는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는 보건간호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준비위원회는 학교의 교육회와 시보건국의 회의에 의하여 세워지며 약간의 경비를 부담하고 있읍니다. 학생들의 실습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보건간호원들의 활동상황을 보면 대개 이해가 되므로 다음으로 미루고 그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겠읍니다.

그들 보건간호원은 일일 계획 또는 주간계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곳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Health Center나 학교, district office, 가정 등입니다. 결핵관리소는 주로 시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공공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읍니다. 결핵관리소의 몇개소는 시에서 직접 운영되나 대부분의 관리소는 City Health

Department의 감독인 밑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읍니다. 결핵관리소의 계획표를 살펴보면 학교 아동과 유아를 돌보는 것이 으뜸으로 되어 있으며 의사의 대부분이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담당하는 전문의로 이루어져 있읍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되는 큰 보건소에서는 임산부를 돌보고 있읍니다. 이들 전문의들은 부업으로 그 관리소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의 지시에 의하여 관리소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계획표를 살펴보건데 보건간호원은 학교 아동관리, 유아보건, 결핵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기타 임산부를 위하여 산파 또는 병리검사를 위하여 병리검사관이 그 관리소에 동원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한 영양사는 관리소에 동원되어 대상자들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여 시당국에 보고하며 계획에 의하여 지도도 하고 있읍니다.

보건간호원들의 계획표에는 예방사업(종두, 소아마비, 백일해, 파상풍, 디푸테리아)으로 면역을 대비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T. B.test Moro test에 의해 B.C.G. 접종도 행하고 있읍니다.

보건간호원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통계로서 전국의 보건행정에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첫째 인적관리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 조직 자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면밀한 계획하에 사업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것은 집무 시간에는 일절 공무 외에는 사람이 없고 타인이 얼핏 보기에는 무척 불친절한 것처럼 보이나 대상자와의 접견에 있어서는 그 친절감이 우리로서는 상상할수 없을만큼 친절하여 사업진행에 전념하고 있읍니다. 그려면 보건간호원의 자격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간호학교나 또는 대학간호과를 졸업하면 우선 2개년간은 의무적으로 간호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이상 기간의 종사가 끝나면 각자 의사에 따라 일단 놀웨이국으로서는 하나 밖에 없는 국립보건학교에 갑니다. 입교한 모든 간호원들은 이 학교에서 약 일년간(강의 4개월 실습 5개월 기타 3개월) 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보건원의 자격을 부여 받읍니다.

특히 놀웨이국의 보건당국은 이해 보다는 실기와 실습을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학생은 보건원으로서 일선 근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건원 활동의 말단 기관인 관리소에서는 건강관리면에서 조금이라도 비위생적인 부분을 가정에서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세밀히 감독과 교육을 시키며 또한 지도를 게을리 하지 않읍니다. 그리고 보건원들은 사생아나 정신박약자 기타 누구든지

언제 어느 때나 건강상담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조금도 어색함이 없이 상담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정방문시에 오히려 귀찮아 하리만큼 보건원들의 방문을 꺼려하고 있지만 그곳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물론 사회구조나 문화수준의 관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개개인이 보건원에게 협조함은 물론 일심동체가 되므로서 능률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건전한 보건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이상적인 보건기구의 활용 및 응용은 마치 로오마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듯이 그들도 부단한 노력과 오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오늘과 같은 결실을 가져왔다고 보며 우리도 좀더 각자가 각성하여 조밀한 계획으로 실천하여 나아간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놀웨이와 같은 훌륭한 보건성과를 이루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건성 당국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보건행정의 육성을 위한 "쎄미나"가 연례행사처럼 국립보건학교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 행사에는 최소한 보건간호원 생활을 십여년 이상씩 한 노련한 보건원만이 초청되어 그들의 경험을 통한 새로운 건설적인 내일의 보건행정이 토의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면허 간호원이 상당수가 개인병원에 근무하고 있다고 얼마전에 당국이 발표한바 있거니와 또한 정부 의료기관에도 상당수의 간호원이 부족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은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마저 없지 않습니다.

두서없이 붓을 옮겨 횡설수설한 감이 없지 않고 좀더 부드럽고 서원한 맛을 주는 글을 드렸으면 하나, 이번 기회에는 한정된 지면이기에 이만 주리기로 하겠읍니다. 혹시 스칸디나비아 3개국에 대한 보건분야에 관하여 묻고 싶은 점이나 좀더 알고 싶은 점이 있는 분은 연락하여 주신다면 문의에 응해 드리겠읍니다.

△ 적십자 사업은 바로 우리들 일이다.

△ 적십자는 생명의 방패 건강의 열쇠.

△ 적십자는 인류의 등불 평화의 상징.